

제22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성명

(2022년 5월 12일, 화상회의)

1.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하 한중일)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중국 재무장관 류쿤을 의장으로 제22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함.
2. 우리는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 동향 및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높은 백신 접종률과 팬데믹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적 조치 덕분에 역내 경제는 2021년에 안정적 성장세를 보임. 그러나 일부 주요 선진국의 예상보다 급격한 통화정책 정상화, 계속되는 공급망 차질,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로 심화된 인플레이션 압력과 같은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가 경기회복세에 영향을 주고 있어, 경제 태세를 유지해야 함. 이러한 요인들은 또한 경제전망에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역내 금융시장 및 자본이동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는 통화 및 금융 안정성과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회복세 유지를 지원하기 정책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임.
3. 팬데믹은 역내 경제에 상흔을 초래하지만 이와 동시에 디지털화, 녹색 전환 및 역내 경제 통합 기회를 제공함. 우리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 발효를 환영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함. 한국, 중국, 일본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3 금융 프로세스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조하여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있어 지속적 진전을 이루고, 보다 강하고 친환경적이며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할 것임.

4. 우리는 현 단계에서 CMIM 작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함.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관례를 반영하는 새로운 CMIM 참조금리의 채택을 환영하며 CMIM 마진 구조에 대한 회원국들의 재검토 노력을 높이 평가함. 또한, CMIM 유동성 지원 측면에서 자국통화 공여절차를 반영하여 개정된 CMIM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을 환영함.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완결짓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국통화 외 다른 회원국 통화(제3국통화)로 공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CMIM 운영지침 상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함. 우리는 회원국들이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인 2차 정기 검토 과정에서 기존 CMIM 기능을 더욱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CMIM 미래방향을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함. 또한, 우리는 12차 모의훈련의 성공을 환영하며 IMF 비연계 자금에서 IMF 연계자금으로의 전환을 시험해보기 위한 13번째 모의훈련을 기대함.
5. 우리는 2021년 12월 7일 AMRO의 창립 10주년 행사 개최를 축하함. 우리는 AMRO가 2021년 ASEAN+ 3 정상회의에 옵저버(observer)로 참가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을 지지함.
6. 우리는 AMRO의 전략방향을 검토하고 역내 지식 허브로서의 AMRO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역내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상세한 이행 계획 수립 이니셔티브를 지지함. 우리는 AMRO의 거시경제 감시 및 분석 역량의 추가 개선을 칭찬하며, AMRO가 거시경제 감시 및 분석에 있어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와 구조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금융안정성 유지, 경제구조 전환 촉진,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를 위해 회원국들에 보다 맞춤형되고 실용적인 정책 조언을 제공할 것을 장려함. 우리는 AMRO가 사고적 리더십(thought-leadership)을 개발하고 ASEAN+ 3의 시

각을 지역의 목소리로서 전세계에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을 권장함. 우리는 AMRO의 CMIM 운용지원, 기술지원(TA: Technical Assistance) 팀 확대, 그리고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재정적 기여 활용도 제고를 통한 TA 활동 향상에 대해 감사함. 우리는 도이 토시노리 소장이 지난 3년 동안 훌륭하게 소임을 다했음에 감사를 표하며 차기 리 커우싱 소장과 함께 향후 3년 동안 의미 있게 일하기를 기대함.

7. 우리는 ABMI 중기 로드맵 2019-2022 이행을 위한 ABMI의 지속적인 진전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ADB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용보증투자기구(CGIF)가 역내통화표시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혁신할 것을 권고함. 우리는 ASEAN+ 3의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보고서를 기대하고, 2023년에 개정될 ABMI 중기 로드맵에 권고와 제안을 제공할 ASEAN+ 3 채권시장 포럼(ABMF)에서 “이중 불일치 문제”의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의 진전을 환영함. 우리는 증권지급결제 인프라포럼(CSIF) 및 아시아적격 담보포럼(APCF)하에서 연구된 최근 진전 상황에 주목함.
8. 우리는 ASEAN+ 3 미래과제에 대해 작업반들이 이룬 성과를 포함하여 ASEAN+ 3 금융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함. 특히, 우리는 회원국들의 구조적 취약성 보완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AMRO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ASEAN+ 3 거시구조적 프레임 워크 및 도구 개발을 지지함. 또한 기존 지역별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재해 금융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핀테크에 대한 역내 정책공조 개선 및 가능한 기술 협력 영역 소개를 인식함. 위에서 언급한 분야 중 세 개 작업반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결과를 향해 전진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또한 금융 디지털화와 전환금융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환영함. 우리는 금융 디지털화가 지역금융

안전망(RF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에 미치는 잠재적 함의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기대하고, 전환금융에 대한 역내 회원국의 요구, 우려사항, 잠재적인 권고사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내놓을 것을 기대함.

9. 우리는 아세안 사무국과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재난 위험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금융회복력 강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재해보험(SEADRIF)의 지속적 노력을 환영함. 우리는 또한 SEADRIF의 회원 확대와 공공 재정보호 프로그램(Public Asset Financial Protection Program)의 진전을 환영함.
10. 우리는 2022년 ASEAN+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 의장으로 중국과 캄보디아가 보여준 지도력에 감사함. 또한, 내년에 열릴 제26차 ASEAN+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을 맡게 된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11. 중국, 일본,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 및 3국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ASEAN+ 3 금융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를 촉진할 것임. 우리는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2023년에 한국 인천에서 다시 만나기로 함.